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09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43)

선작지왓 암괴 아래 펼쳐진 仙境

입력 : 2004. 08.20. 00:00:00



▲선작지왓 10여개의 암석군가운데 서귀포방면에 위치한 암괴. 이 암괴 정상에 오르면 선작지왓의 광활한 규모가 한눈에 들어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사진=강경민기자 qmkanq@hallailbo.co.kr

가장 쓸쓸한 바람이 살고 있는

이 고원(高原)에

한 가지 소원을 묻어 두었다

산 넘어 가는 구름

걸터앉아 쉬는 바위 틈마다

봄눈 속에 피어난 산진달래

꿈에도 보인다

그 팍팍한 슬픔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이름없는 것들이

열심히 피고 지는 까닭에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다는데

가장 소중한 것

가슴에 묻어도

슬며시 빠져나와 깊은 잠 흐드는

더 이상 쓸쓸할 수도 없는

이곳에서

또 한세상 살리라

그리움의 발길 헤매리라

- (선작지왓/김순이)

△선작지왓(下)

‘오름나그네’ 김종철은 선작지왓에 있는 ‘탑궤’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경관을 유난히 좋아했다. 탑궤는 구 영실등반로 길목에 있는 돌탑으로, 선작지왓 일대에 산재한 여러 개의 암석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

선작지왓에는 10여개의 암석군이 마치 별자리 모양처럼 산재해 있는데 맑게 개인 날 한라산 정상에 오르면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탐사팀은 8월 14일 오후 영실 초기 등반로를 따라 선작지왓을 다시 찾았다. 이 등반로는 영실 오백나한을 타고 오르는 구등반로보다도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수백년전부터 한라산 답사가 이곳을 경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등반로변에는 제주불교의 역사가 녹아있는 수행굴이 위치해 있다.

수행굴 답사를 마친 탐사팀은 도순천 발원지와 구상나무숲을 헤치고 나오자 돌무더기와 구상나무숲, 초원이 마치 선경처럼 다가온다. 바로 선작지왓이다. 구상나무숲과 초원을 가로질러 서귀포방면의 암괴쪽으로 향했다. 10여\times27841> 높이의 이 암괴는 탑궤와 더불어 선작지왓에 분포하는 암석군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라산 고산생태계의 공간인 선작지왓은 최근 생태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곳의 경관을 상징하는 산철쭉과 털진달래 등 특산·희귀식생들이 제주조릿대에 의해 급속히 잠식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눈에도 제주조릿대의 위세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한라산 고산초원지대 초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제주조릿대는 선작지왓은 물론 윗세오름, 장구목, 진달래밭 대피소의 관목림까지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한라산 아고산 지대를 완전히 덮어 버릴 정도라고 우려한다.

선작지왓을 중심으로 한 아고산대는 제주 특유의 혹독한 기후와 척박한 토양조건에 적응하며 생존한 결과, 국내의 어떤 지역보다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런 곳에 제주조릿대가 번성한다는 것은 희귀식물의 보존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제주조릿대는 털진달래, 산철쭉을 비롯한 많은 특산식물들을 덮어 고사시키고 있다. 아고산대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선작지왓은 최근에는 훼손지복구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산지대는 집중 강우, 강한 바람 등의 자연환경요인에 의하여 땅 표면에 붙어사는 지피식생의 파괴, 나지(裸地, 황폐지, 맨땅)의 형성 식물의 이입과정이 반복된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적 조건 등으로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더라도 극한 환경조건에서 잘 적응하는 다양한 고산 동·식물의 지속적인 종 보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고산지대다.

탐사팀은 선작지왓의 남쪽에 해당하는 효돈천 상류 '서산벌른내'쪽으로 이동했다. 풍화침식을 받은 잔 자갈들이 널려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훼손지로 분류될 수도 있는 지역이다. 그 면적이 어림잡아 수만㎡에 이른다. 앞으로 복구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이다.

한라산과 칠성대

제주도에 관한 옛 문헌자료를 보면 칠성대(七星臺)에 관한 기록이 종종 등장한다. 하나는 지금의 제주시 일도, 이도, 삼도동, 그러니까 칠성로에서 관덕정과 남문로터리 부근에 설치됐던 것으로 1930년대초까지 일부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칠성대는 북두칠성의 형태를 띠었던 돌탑으로 만농 흥정표선생(작고)는 '탐라성주유사'에서 탐라시대 삼을라 후손들이 북두칠성의 형태를 본따 쌓은 것으로 세시(歲時)에 삼을라 후손들이 치제(致祭)하던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등반기와 지도 등을 보면 한라산에도 '칠성대(七星臺)'라는 곳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몇년전 본보가 발굴 보도한 전라도에 거주하는 제주양씨 가문의 족보에 수록된 목판본 '제주도지도(濟州島地圖)'에는 한라산정상 부근에 바위그림과 함께 '칠성대(七星臺)'라고 표

시한 글이 보인다.

그러면 한라산의 칠성대는 어디에 있으며, 어느 지점을 일컫는 것인가.

제주판관을 지낸 김치(金緻·1577~1625년)의 한라산 등정기를 보면 칠성대(七星臺)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수행동을 지나서 10여리를 가자 칠성대에 닿았다. 칠성대로부터 5리쯤 더 가니 석벽이 깎아 세워지고 반공(半空)에 기둥처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곧 상봉(上峰)이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수행동은 영실골짜기를 말한다. 영실은 옛부터 술한 관리와 선비들이 한라산을 오를 때 이용했던 등반 코스였다. 그러니까 김치판관은 영실에서 10리(1리는 400m)를 올라 칠성대에 닿았고, 5리를 더 가니 정상아래 절벽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김치판관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자리는 선작지왓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선작지왓 일대를 살펴보면 '탑궤'를 비롯한 높이 7~10m, 넓이 15~20m, 폭3~5m에 이르는 암석군(岩石群) 10여개소가 보인다. 산악인들은 산정에 올라 이들 암석군을 보며 북두칠성의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칠성대라고 불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고문헌에는 영실일대의 암석군을 칠성대로 일컬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록도 보여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김치판관의 자세한 기록은 오류여야 한다.

한라산 칠성대는 앞으로 관심있는 이들의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칠성대의 위치는 물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이는 한라산에 대한 옛 선인들의 인식과 정신세계를 이해함은 물론 한라산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문규 탐사단장>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